

## 〈서왕가〉의 수용문맥과 교훈의 재해석\*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에 수록된 〈서왕가〉를 중심으로-

정한기\*\*

1. 머리말
2. <서왕가>의 수용문맥
3. <서왕가>에 나타난 교훈의 재해석
4. 맺음말

### <국문초록>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의 ‘염불작법(念佛作法)’에 수록된 <서왕가(염불)>에 나타난 교훈은 대중 포교용 불교가사와는 내용·표현적 특징에서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이런 생각에서 본고에서는 <서왕가(염불)>의 수용문맥과 <서왕가(염불)>에 나타난 교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왕가(염불)>의 수용문맥이다.

<서왕가(염불)>는 대중 포교용 서적인 『염불보권문』의 ‘염불작법’에 수록되어 있다. ‘염불작법’은 불교의례에 쓰인 염불문을 모은 것으로 <서왕가(염불)>가 염불문의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서왕가(염불)>에는 화자의 ‘번뇌와 수행·득도’에 대한 독백과 불교적 교훈에 대한 전언이 있는데 <서왕가(염불)>와 유사한 작품이면서도 대중 포교용으로 수용된 작품인 <강월존자 서왕가>와 <서왕가(권상로)>에서는 노랫말에 ‘번뇌와 수행·득도’

\* 이 논문은 2016년도 전주교육대학교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전주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 조교수

라는 내용이 없다. 이러한 사실들로 보아 <서왕가(염불)>는 대중 포교용으로 수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불교의례의 염불문의 하나로 수용되었다.

둘째, <서왕가(염불)>에 나타난 교훈이다.

<서왕가(염불)>에서는 ‘인식기관과 집착의 결합으로 생긴 번뇌를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제거하여 득도에 이른다’는 것이 주된 교훈이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뉜다. 첫 번째 부분은 ‘번뇌와 수행·득도’하는 삶에 대한 ‘나’(수행자)의 독백이고, 두 번째 부분은 중생에게 불교적 교훈을 전달하는 ‘나’(수행자)의 전언이고, 세 번째 부분은 전언을 듣고 수행·득도하는 ‘나’(중생)의 독백이다. <서왕가(염불)>는 대중 포교용으로 수용되었으므로 중생 ‘나’의 독백이 있고 ‘번뇌’를 제시하여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득도’의 길을 제시하는 순서로 전개되어 대중들이 공감하기 쉽다. <서왕가(염불)>는 불교의례에서의 염불문의 하나로 수용되었으므로 수행자 ‘나’의 독백이 있고 번뇌를 제시한 다음 ‘수행·득도’의 길을 제시하는 순서로 전개되고 자리타(自利利他)를 모두 제시하여 승려들이 공감하기 쉽다.

핵심어: 불교, 불교가사, <서왕가>, 『염불보권문』, 염불작법, 화자, 수용 문맥, 교훈.

## 1. 머리말

불교가사의 주된 내용은 청자에게 불교적 교훈을 전달하는 것이다. 그런데 교훈의 ‘내용과 표현’은 개별 작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개별 작품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내용과 표현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은 불교가사가 지닌 문학적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작품에 나타난 ‘내용과 표현적 특징’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살펴보는 것은 불교가사가 지닌 문학적 의미를 확장하는 역할을 한다. 그 배경 가운데 하나가 작품이 수용된 문맥이다. 불교가사에서 작품의 수용문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서왕가(西往歌)>이다. <서왕가>가 수록된 최고(最古)의 문헌은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이다. 『염불보권문』의 문맥을

살펴봄으로써 <서왕가>의 수용문맥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서왕가>는 비교적 이른 시기의 불교가사로 이후에 창작된 불교가사를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할 수도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서왕가>의 수용문맥과 작품에 나타난 교훈의 ‘내용과 표현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왕가>에 대한 연구는 가사발생과 관련된 작자의 진위에 대한 논의,<sup>1)</sup> <서왕가>의 문학적 가치에 대한 논의,<sup>2)</sup> <서왕가>의 수록문헌과 유통에 대한 논의<sup>3)</sup> 등이 있다. 가사발생과 관련된 작자의 진위에 대한 논의에서는 <서왕가>의 작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면서 작품에 나타난 교훈의 특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정재호 교수가 <서왕가>에 나타난 내용은 “세상의 탐욕(貪慾)은 부질없는 것이고 염불(念佛)만이 극락(極樂)으로 갈 수 있는 길”임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한 것<sup>4)</sup>이 그 예이다. <서왕가>의 수록문헌과 유통에 대한 논의에서는 <서왕가>가 『염불보권문』에 수록되어 판본으로 유통되었음을 알려주고 『염불보권문』이 수록된 여러 종류의 판본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고 있으나 작품에 나타난 교훈의 ‘내용과 표현적 특징’에 대한 논의는 소략한 편이다. <서왕가>에 대한 본격적인 작품론은 김대행 교수와 조태영 교수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김대행 교수는 <서왕가>는 전반부의 독백과 후반부의 전언이라는 이중구조로 이루어진 작품으로 1인칭 ‘나’의 독백으로 독자들이 동화되기 쉬워 불교적 교훈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하였다.<sup>5)</sup> 조태영 교수는 <서왕가>는 작가의 출가와 내적 수행과 깨달음의 알레고리, 중생을 제도하는 알레고리, 설법을

- 1) 김종우, 「나옹과 그의 가사에 대한 연구」, 『논문집』 17집, 부산대학교, 1974, 1~23면; 김기탁, 「懶翁和尚의 작품과 가사발생연원 고찰」, 『영남어문학』 3집, 영남어문학회, 1976, 45~59면; 최강현, 「가사의 발생사적 연구」, 『가사문학연구』, 정음사, 1979, 13~81면; 정대구, 「승원가의 작자 연구」, 『승실어문』 1집, 승실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84, 149~174면; 강전섭, 「傳懶翁和尚作 歌辭 四篇에 대하여」, 『한국시가문학연구』, 대왕사, 1986, 70~103면; 정재호, 「나옹작 가사의 진위」, 『한국가사문학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83~109면; 정재호, 「서왕가와 승원가의 비교」, 『한국가사문학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110~135면.
- 2) 조태영, 「서왕가의 문학적 가치」,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585~596면; 김대행, 「서왕가와 문학교육론」, 『한국가사문학연구』, 태학사, 1996, 597~611면.
- 3) 최강현, 「서왕가 연구」, 『인문논집』 17집,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1972, 93~114면; 김영배 외 2인 공편, 『念佛普勸文의 國語學的 연구』, 동악어문학회, 1996; 김종진, 「불교가사의 유통 연구」, 동국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2000.
- 4) 정재호, 「나옹작 가사의 진위」, 『한국가사문학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83~109면.
- 5) 김대행, 앞의 논문, 597~611면.

듣고 회심한 사람이 속계를 해탈하는 알레고리 등의 서사적 알레고리를 통하여 시적 환상을 불러일으키고 고백적 형식이 있음이 특징적이라고 하였다.<sup>6)</sup> 두 연구 모두 <서왕가>가 여타의 불교가사와는 다른 표현적 특징이 있음에 주목하였다. 김대행 교수는 ‘허구적인 화자’의 독백과 전언이 있는 작품이라고 보았고, 조태영 교수는 ‘작가 화자’와 ‘설법을 듣고 회심한 화자’가 있는 작품이라고 보았다. 본고는 앞의 논의들을 모두 수용한다. 그럼에도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다.

- 1) <서왕가>에 나타난 교훈의 내용적 특징은 무엇인가?
- 2) <서왕가>에 나타난 교훈의 표현적 특징은 무엇인가?
- 3) 앞에서 살펴본 ‘내용·표현적 특징’이 왜 <서왕가>에 나타나는가?

선행연구에서 <서왕가>에 나타난 교훈은 ‘세상의 탐욕을 버리고 염불하라는 것’이라고 하였다.<sup>7)</sup> 그런데 <서왕가>에는 중생에 대한 전언만이 아니라 ‘독백(또는 고백)’도 있다. 그 독백은 화자 자신의 ‘수행과 깨달음’이다. <서왕가>에 나타난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화자가 무엇을 깨달았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고, 중생에게 무엇을 전언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서왕가>에 나타난 표현에서는 <서왕가>에는 허구적인 화자의 독백·전언이 있다고 본 경우와 작가인 화자의 말·회심(回心)한 화자의 말 등이 있다고 본 경우가 있어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화자가 허구적인지 실제 작가인지의 구별이 필요하고 작품 진행에 따라 화자와 말하는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서왕가>에 나타난 교훈의 ‘내용·표현적인 특징’이 의미를 얻기 위해서는 왜 그러한 특징이 나타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서왕가>에 나타난 교훈의 ‘내용·표현적인 특징’의 배경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서왕가>가 수록된 『염불보권문』의 문맥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서왕가>에 나타난 교훈의 ‘내용·표현적 특징’을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선행연구에서 소홀히 하였던 <서왕가>의 본문에 달려있는 주(註)를 참조하여야 한다.<sup>8)</sup> 이에 본고에서

6) 조태영, 앞의 논문, 585~596면.

7) 정재호, 앞의 논문, 83~109면.

8) 『염불보권문』에 수록된 <서왕가>의 본문에는 큰 글씨의 노랫말 외에 각 구절마다 작은 글

는 <서왕가>가 수록된 『염불보권문』을 중심으로 <서왕가><sup>9)</sup>가 수용된 문맥을 살펴보고 <서왕가(염불)>의 본문에 달린 주(註)를 중심으로 <서왕가(염불)>에 나타난 교훈의 ‘내용·표현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 2. <서왕가>의 수용문맥

<서왕가>가 수록된 현전 최고(最古)의 문헌은 예천(醴泉) 용문사(龍門寺)에서 간행된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이다. 『염불보권문』은 숙종 연간(1675~1720)에 명연(明衍)이란 승려가 원나라 왕자성(王子成)의 『예념미타도량참법(禮念彌陀道場懺法)』을 본받아 대중들에게 염불(念佛)을 권하기 위하여 엮은 책으로 1704년 예천 용문사에서 간행되었다. 여러 경문에서 아미타불(阿彌陀佛)에게 참회하거나 아미타불을 찬양하는 내용의 글들을 뽑아 언해하였고, 극락에 대한 묘사·염불하여 왕성한 사람들의 이야기 등을 한글로 쉽게 풀이한 점이 특징적이다. 1704년 예천 용문사에서 간행된 것이 현전 최고이고, 이후 수도사(修道寺)에서 1741년 간행된 것, 동화사(桐華寺)에서 1764년 간행된 것, 묘향산(妙香山) 용문사(龍門寺)에서 1765년 간행된 것, 흥률사(興律寺)에서 1765년 간행된 것, 해인사(海印寺)에서 1776년 간행된 것, 선운사(禪雲寺)에서 1787년 간행된 것 등이 있다. 『염불보권문』은 판본이 일곱 종이냐 될 정도로 대중에게 널리 보급된 책이다. 일곱 종의 판본은 미세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아미타불에 대한 찬양과 극락세계의 모습에 대한 묘사’, ‘염불하여 왕성한 사람들의 이야기’, ‘염불작법(念佛作法)’, ‘부록’ 등의 네 부분으로 구성된 점은 같다.<sup>10)</sup>

---

씨로 주(註)가 달려 있다. 수도사본(1741) 『염불보권문』에서는 큰 글씨와 작은 글씨의 주에 대하여 큰 글씨는 대목을 쓴 것이고 작게 쓴 것은 깊은 뜻을 쓴 것이라고 하였다. “크게 쓴 거슨 대문을 써시니 외오고 또 줄게 쓴 거슨 김픈 쓰들 써시니 불 만후라” 『염불보권문』, 수도사, 1741(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9) 『염불보권문』에 수록된 <서왕가>를 <서왕가>란 제명을 지닌 다른 작품들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하 <서왕가(염불)>로 약칭한다.

10) 각 판본 별로 내용이 약간 추가되기도 하나 구성에서는 차이가 없다. 동화사본에서는 두 번째 부분에 ‘공각전이라, 승귀라호는중’이란 내용이 추가된 것, 흥률사본에서는 첫 번째 부분에 ‘弟子宗本生于四明陳氏承感’ 등의 4편이 추가되고 세 번째 부분에 ‘阿彌陀佛本心微妙眞

<서왕가(염불)>는 세 번째 부분인 ‘염불작법(念佛作法)’에 수록되어 있다. 작법(作法)이란 주지하듯이 ‘불교의례’를 뜻한다.<sup>11)</sup> 염불작법은 사찰의 불교의례에 필요한 다양한 염불문들을 모아놓은 것이다. 염불작법에 수록된 다양한 염불문들은 일정한 순서로 배열되어 있으며 여섯 종의 판본에서 그 순서가 대동소이하다. 선운사본(1787) 『염불보권문(念佛普勸文)』의 염불작법에 수록된 염불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淨口業眞言, 開經偈, 開法藏眞言, 천수천안관즈지보살광대원만무애대비심, 신묘장구대다라니, 천수다라니 본문, 道場偈, 懺悔偈, 讚佛偈, 往生偈, 여력십대발원, <나옹화상서왕가>, <인과문>, 大佛頂首楞嚴神呪<sup>12)</sup>

이러한 염불문들은 사찰에서 승려들이 일상적인 예불의 의식에서 암송된 염불문과 그 종류와 배열의 순서가 유사하다.<sup>13)</sup> 이러한 사실을 보면 ‘염불작법’에 수록된 염불문들은 승려들이 불교의례에서 암송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부록’에 수록되어 있는 <회심가>는 『염불보권문』이 일곱 차례 간행되는 동안 판본에 따라 수록되거나 생략되었다.<sup>14)</sup> 이와는 대조적으로 <서왕가(염불)>는 홍률사본(1765)을 제외하고 여섯 종의 판본에서 ‘염불작법’에 수록되어 있고, ‘염불작법’에서 <서왕가(염불)>와 염불문들의 위치가 위에서 제시한 것과 유사한 순서로 고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서왕가(염불)>가 ‘염불작법’의 고정된 레퍼토리 가운데 하나라는 것을 말한다.

言’ 등 3편이 추가된 것, 묘향산 용문사본에서는 첫 번째 부분에 ‘歸依三寶篇’ 등 3편이 추가되고 두 번째 부분에 ‘香山白樂天讚誓法門’ 등 3편이 추가된 것 등이 예이다. 김영배 외 2인 공편, 앞의 책, 93~117면.

11) 홍윤식, 『한국불교사의 연구』, 교문사, 1988, 446면.

12) 『염불보권문』, 선운사, 1789(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13) 정각(문상련)은 전래의 의례집을 바탕으로 승려들의 일상적인 예불의례에서 송주된 예불문을 정리하였고 그 예불문에는 “淨口業眞言, 五方內外安慰諸神眞言, 開經偈, 開法藏眞言, 開經偈, 開法藏眞言, 천수다라니, 四方讚, 道場讚” 등이 있다고 하였다. 『염불보권문』의 ‘염불작법’에 수록된 “淨口業眞言, 開經偈, 開法藏眞言, 천수다라니 본문, 道場偈” 등이 앞에 제시된 예불문과 같다. 예불의례에 대한 것은 정각(문상련), 『한국의 불교의례』, 운주사, 2001, 92면 참조.

14) <회심가>는 동화사본(1764), 묘향산 용문사본(1765), 해인사본(1776), 선운사본(1787)에는 수록되어 있으나, 예천 용문사본(1704), 수도사본(1741), 홍률사본(1764) 등에는 생략되어 있다. 김영배 외 2인 공편, 앞의 책, 93~117면.

<서왕가(염불)>가 염불문의 하나였을 가능성은 <서왕가(염불)>와 유사한 작품이면서도 대중 포교용으로 수용된 작품에서 노랫말에 차이가 있다는 점으로 뒷받침된다. <서왕가(염불)>의 노랫말을 근간으로 하면서도 일부분의 구절에 차이를 보이는 작품에는 『신편보권문(新編普勸文)』에 수록된 <강월존자 서왕가(江月尊者 西往歌)>와 권상로(權相老, 1879~1965)가 채집한 <나왕화상서왕가><sup>15)</sup>가 있다. 『신편보권문』은 시주(施主)인 각성(覺醒)의 의뢰를 받은 해인사 승려 유기(有璣)가 『염불보권문』을 대본으로 재편집하여 1776년 해인사에서 간행한 책이다.<sup>16)</sup> 이 책에서 <서왕가>는 <강월존자 서왕가>란 이름으로 휴정의 <회심가>와 함께 부록에 수록되어 있다. 『신편보권문』에는 ‘염불작법’이 없어 의례집으로써의 기능보다는 대중 포교를 위한 기능이 주를 이룬다. <강월존자 서왕가>에 대한 부대기록<sup>17)</sup>에서도 대중들이 이 노래를 ‘읽고 듣는 것’으로 혜택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강월존자 서왕가>는 불교의례에서 암송된 노래라기보다 대중 포교를 위한 노래임을 알 수 있다. <서왕가(권상로)>는 19세기 후반에 권상로가 채집한 것을 김태준이 『조선가요집성』에 수록하여 소개한 것이다. 권상로가 어떤 경로로 채집한 것인지는 미상이나 가요집에 수록된 것을 보아 불교의례의 노래라기보다 대중 포교용 노래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서왕가>의 노랫말에는 ‘염불작법’에 수용된 작품과 ‘염불작법’에서 벗어나 대중 포교용으로 수용된 작품에 차이가 있다. <서왕가(염불)>에는 ‘나’가 독백하는 부분과 화자가 중생에게 불교적 교훈을 전달하는 전언으로 부분이 있고,<sup>18)</sup> 독백의 부분은 인생의 무상함을 극복하기 위하여 출가를 결심하고, 번뇌를 제거하여 득도에 이르고, 득도 후에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려 한다는 내용이다. ‘출가 - 번뇌와 수행 · 득도 - 이타행’으로 되어

15) 권상로가 채집한 <나왕화상서왕가>는 이하 ‘<서왕가(권상로)>’로 약칭한다.

16) 최강현, 앞의 논문, 93~112면.

17) 부록에는 “이 두 노래는 동방의 강월, 청허 두 존자가 찬한 것인데 진문과 언문을 섞은 것으로 사람들이 보고 읽고 후 듣는 것으로 인하여 염불하는 자가 반드시 이루는 것이 있을 것이니 고로 부록으로 한다(此下兩歌 卽我海東江月清虛二尊者所撰而雜以眞諺 若人看而讀之 或因人聞之 必有念佛者盛矣 故附錄耳)”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을 보면 <강월존자 서왕가>가 염불하는 대중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용문은 『신편보권문(新編普勸文)』, 해인사, 1776(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이다.

18) 김대행, 앞의 논문, 597~611면.

있다. <서왕가(권상로)>의 노랫말에서는 ‘번뇌와 수행·득도’의 부분이 없고 인간사의 무상함에 대한 노랫말이 확장되어 있고, 지옥과 극락에 대한 묘사로 청자에게 불교적 교훈을 전언하고 있다. <서왕가(권상로)>에서는 대중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생무상과 사후세계라는 내용이 확장되어 있고, 교훈을 전달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강월존자 서왕가>에서도 ‘번뇌와 수행·득도’의 부분이 없이 인생무상에 대한 독백과 교훈의 전언으로만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강월존자 서왕가>와 <서왕가(권상로)>는 불교의례의 염불문이 아닌 대중 포교용으로 수용되어 불교의례의 염불문으로 수용된 <서왕가(염불)>와는 다르게 대중에게 교훈을 전달하는 전언이 중심인 작품임을 알 수 있다. 역으로 <서왕가(염불)>는 불교의례의 염불문으로 수용된 노래이므로 작품에 화자 ‘나’의 ‘번뇌와 수행·득도’에 대한 독백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서왕가(염불)>가 염불문의 하나였을 가능성은 현행의 예불의식에서 원효(元曉, 617~686)의 『발심수행장(發心修行章)』, 지눌(知訥, 1158~1210)의 『계초심학인문(誡初心學人文)』, 불교가사인 경허(鏡虛, 1849~1912)의 <참선곡(參禪曲)> 등이 암송된 사실<sup>19)</sup>로도 뒷받침된다.

<서왕가(염불)>는 대중 포교용 서적인 『염불보권문』에 수용되었다. 따라서 수용자는 일반 대중이다. 뿐만 아니라 <서왕가(염불)>는 불교의례에서 염불문의 하나로 수용되었다. <서왕가(염불)>는 『염불보권문』의 ‘염불작법’에 수록된 것, <서왕가(염불)>와 유사한 작품이면서도 대중 포교용으로 수용된 작품에서는 노랫말에 ‘번뇌와 수행·득도’라는 내용이 없다는 것, 현행 불교의례에서 가사작품이 암송된 예가 있다는 것 등이 염불문의 하나일 가능성을 뒷받침한다. <서왕가(염불)>가 염불문의 하나로 암송되었다면 그 수용자는 일반 대중뿐만 아니라 승려일 가능성도 크다.

19) 정각(문상권), 앞의 책, 92면.

### 3. <서왕가>에 나타난 교훈의 재해석

<서왕가(염불)>에 나타난 특징에 대하여 전반부의 독백과 후반부의 전언이라는 이중구조로 이루어진 것이란 견해<sup>20)</sup>와 작가의 출가와 내적 수행과 깨달음, 작가의 중생제도, 회심한 자의 깨달음으로 구성된 것이라는 견해<sup>21)</sup>가 있다. <서왕가(염불)>에 나타난 교훈의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점, 그 내용으로 보았을 때 화자를 허구적으로 볼 것인지 실제 작가로 볼 것인가 하는 점, 작품의 진행에 따라 화자와 말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하는 점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은 『염불보권문』에 수록된 <서왕가(염불)>의 전문(全文)이다.

(가) ① 나도 이렇만정 세상에 인재러니 / 무상을(무상은 사름이 오래 사지 못  
하는 말이라) 생각하니 다 거죽 거시로쇠 / 부모의 키친 얼골 주근 후에 속결업  
다 / 저근닷 생각하야 / 세스를 후리치고 부모씨 하직하고 / 단표즈 일납애 청녀  
장을 비기들고 / 명산을 츠자드러 선지식을(선지식 불법아는 사름이라) 친견하야  
/ 믿음을 불키려고 천경만론을(천경 만론 불경이라) 낫낫치 चु심하야 / ② 늑적을  
(늑과 코와 셔와 몸과 귀와 탐심하니 여섯 도적이로다) 자부리라 허공마를(허공  
마는 사름의 믿음이라) 빗기토고 / 마야검을(불법아는 말이라) 손애들고 오온산  
(믿음과 몸과 오온산니라) 드러가니 / 재산은(재산은 세간 번노심미라) 천첩하고  
스상산이(스상산은 아상 인상 중성상 슈자상이라) 더욱 높다 / 늑근 문두애(늑근  
은 늑과 코와 혀와 귀와 몸과 뜻과 늑문이라) 자취업슨 도적은 나며 들며(탐심을  
내며 드러며 하는 말이라) / 하는 중에 번노심 베쳐 노코 / 지혜로 비를 무어 삼  
계 바다(삼계는 육계 늑천과 싱계 심팔천과 무식계 스천과 삼계니라) 건네리라 /  
③ 념불중성 시러두고 삼승 덩째예 / 일승 듯글(불법 말씀이라) 드러두고 / 춘풍  
은 순히 불고 비운은 섯도논디 / 인간을 생각하니 슬프고 설운지라 / (나) 념불  
마는 중성트라 멧성을 살나하고 / 세스만 탐착하야 인욕의 잠겼는다 / 흐르도 열  
두시오 혼들도 설흔 날애 / 어니 날애 한가홀고 / 청명흔 불성은 사름마다 7자  
신들 / 어니 날애 생각하며 / 흥사공덕은 불니 구독홀들 어니시에 나야빨고(불성  
은 사름마다 7자 인는 마리라) / 셔왕은 머러지고(셔왕은 극락세계) 지옥은 갓갓  
도쇠 / 이보시소 어로신네 권하노니 종제선근 시무시소(종제선근 부모효양 불공

20) 김대행, 앞의 논문, 597~611면.

21) 조태영, 앞의 논문, 585~596면.

보시 넘블희주 등시이라/ 금싱에 호은 공덕 후싱에 슈호느니 / 빅년탐물은 흐르  
 아적 듯글이오(사름이 주근 휘면 세간시 다 거긔 것시니라) / 삼일 호은 넘블은  
 빅천만겁에 다 흙 업슨 보벼로쇠 / 어와 이 보벼 력천겁이 불공호고 공만세이 장  
 금이라(사름의 불성은 살며 늘그며 봉들며 죽는고 되다 업다호 마리라) / 건곤이  
 녀다호달 이 므옴에 미출손가 / 일월이 불다호달 이 므옴에 미출손가(사름의 본  
 심 광명은 하늘 짜과 헛달 광명도 맞지 못호 말이라) / 삼세 제불은 이 므옴을 아  
 르시오 / 녹도 중싱은 이 므옴을 저브릴시(녹도는 천상과 인간 귀신과 지옥 증싱  
 규라가 녹도니라) / 삼계눈회를 어너 날에 굿칠손고(사름되며 증싱되며 호기를  
 굿칠미 업다는 말이니라) (다) 저근닷 싱각호야 므옴을 찌져먹고 / 태허를 싱각호  
 니 산첩첩 슈잔잔 / 풍슬슬 화명명호고 송죽은 낙낙호디 / 화장바다(니 인간 세  
 계니라) 건네 저어 극락세계 드러가니 / 칠보금디예(칠보는 금과 은과 자기 마노  
 산호 호박 진주 칠보니라) 칠보망을 둘러시니 구경호기 더욱 조희 / 구품년디예  
 넘블소리 자자잇고 / 청학빅학과 잉무공작과 금봉청봉은 호느니 넘블일쇠 / 청풍  
 이 건듯부니 넘블소리 요요호외 / 어와 슬프다 우리도 인간에 나왔다가 넘블말  
 고 어이홀고 나무아미타불<sup>22)</sup>

(가)는 화자인 ‘나’의 독백으로 되어 있다. ‘나’는 인간사의 무상(無常)함  
 을 느껴 출가하고(①) 수행하고 득도하고(②) 이어 불쌍한 중생들을 배에  
 실어 삼계 바다를 건너려 한다.(③) 화자의 생애는 ‘출가-번뇌와 수행·득  
 도-이타행’로 전개된다. 이 전개는 자리아타(自利利他)라는 불교의 이상을  
 드러낸다. 따라서 작가의 진술이 아니라 이상적인 ‘수행자’의 진술이라고  
 볼 수 있다.

화자는 인생의 무상함을 느껴 세사를 버리고 깨달음을 얻기 위하여 길  
 을 떠난 뒤 수행과 득도하는 과정을 밟는다. 육적(六賊)을 잡기 위하여 허  
 공마를 타고 마야검을 든다. 육적에 대하여 주에서는 “눈과 코와 혀와 몸  
 과 귀와 탐심호니 여섯 도적이로다”라고 하였다. 육적은 인간의 인식기관  
 인 육근(六根 : 耳目喉鼻舌意)에 탐심(貪心)이 결합된 것이다. 육근과 관련  
 된 용어로 제12행에 “육근 문두”란 구절이 있다. “육근 문두”에 대하여 주  
 에서는 “눈 코 혀 귀 몸 뜻”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나며들며”하는

22) 『염불보권문』, 선운사, 1789(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괄호 속의 글자는 본문에서 작은 글  
 씨로 된 주이다. 빗금, 원문자, 괄호는 필자가 한 것으로 이하 같다.

것에 대하여 주에서는 “탐심을 내며 드리며 흐는 말이라”고 하였다. 육적은 인간의 인식기관(六根)과 ‘탐심(貪心)’이 결합되어 생긴 번뇌란 뜻이다. 허공마는 주에서 “사람의 믿음이라”라고 하였다. 허공은 어떤 마음을 뜻하는가? 불교가사에서 허공(虛空)과 마음이 결합되어 쓰인 예는 “내외자성(內外自性) 청정하여 본래일물(本來一物) 걸림업네/ 태허공(太虛空)에 새가 나니 새 난 자취 어데 잇나/ 자성허공(自性虛空) 청정(淸淨)하니 죄상(罪相) 자취 잇슬손가”(작자미상, <권왕가>)란 구절<sup>23)</sup>, “희노심(喜怒哀心)을 내지 말고 허영(虛靈)한 내의 마음 / 허공(虛空)과 같은 줄로 진실(眞實)이 생각하여”(경허, <참선곡(參禪曲)>)라는 구절<sup>24)</sup> 등이다. 이때 허공은 허망한 분별이나 경계가 없는 청정한 본래의 마음을 말한다.<sup>25)</sup> “허공마를 빗기” 타는 것은 분별이나 경계가 없는 청정한 상태의 본래 마음을 가진다는 뜻이다. “마야검”은 주에서 “불법 아는 말이라”라고 하였다. ‘마야검’는 ‘반야검’의 오기로 『반야심경』의 지혜를 아는 것 또는 불법의 지혜를 아는 것이란 의미로 이해된다.<sup>26)</sup> 화자인 ‘나’는 인식기관에 탐심이 결합하여 번뇌가 생겼다. 그 번뇌를 제거하기 위하여 청정한 본래의 마음으로 불법의 지혜를 가지려 한다.

이어 “오온산(五蘊山) 드러가니 / 제산은 천첩하고 스상산이 더욱높다”라고 하였다. 오온산(五蘊山)에 대하여 주에서는 “믿음과 몸과 오온산니라”라고 하였다. 오온은 인간의 몸에 해당하는 감각적인 인식인 색온(色蘊)·

23) 이상보 편저, 『불교가사전집』, 집문당, 1980, 253~254면. 이상보 편저, 『불교가사전집』, 집문당, 1980은 이하 『불교가사전집』으로 약칭한다.

24) 『불교가사전집』, 274면.

25) 方立天은 본래의 마음(자성)은 허망한 분별이나 경계가 없는 청정한 것이라고 하였다. 方立天, 『불교학개론』, 유영희 옮김, 민족사, 1992, 239면.

26) 불교가사에서 ‘마야검’과 유사한 단어가 보이는 구절은 “형체(形體) 업는 육도적(六盜賊)을 낫낫지 잡으리라/ 반야(般若)에 검(劍) 손에 들고 오온산(五蘊山) 들어가니”(〈서왕가(권상)〉, 『불교가사전집』, 144면), “막사혜검(莫邪慧劍) 빼혀 내어 무명황초(無明荒草) 다 버히고”(작자미상, <몽환가(夢幻歌)〉, 『불교가사전집』, 324면) 등이다. 막아(莫邪, 鑊邪)는 오(吳)나라 간장(干將)이 자신의 아내인 막아(鑊邪)의 이름을 따서 만든 예리한 보검이란 뜻이다. 반야(般若)는 지혜 또는 『반야심경』이란 뜻이다. <서왕가(염불)>에서는 “마야검”을 ‘불법을 아는 일’이라고 하였다. <서왕가(염불)>의 제13~14행에서는 “번노심 베쳐 노코 / 지혜로 빅룰 무어”라고 하였다. 지혜로 번뇌심을 베어 놓고 지혜로 배를 만든다는 뜻으로 이해된다. 곧 칼의 이름에는 지혜가 들어가는 것이 적당하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마야검”은 “반야검”의 오기로 보이고, “반야검”은 『반야심경(般若心經)』에 나온 지혜 또는 불경의 지혜란 뜻으로 이해된다.

수온(受蘊)과 마음에 해당하는 정신적인 인식인 상온(想蘊)·행온(行蘊)·식온(識蘊)을 말한다. 여기에 세상의 모든 것이 실재한다고 믿는 집착(取)이 결합하여 생긴 것이 오취온(五取蘊)이며 인식기능에 집착이 결합함으로써 인간의 고통이 생긴다.<sup>27)</sup> 오온산은 인식기능에 집착이 결합된 것을 말한다. 제산(諸山)에 대하여 주에서는 “세간의 번뇌심이라”라고 하였다. ‘제산이 첩첩하다’는 것은 오취온으로 말미암아 번뇌·고통이 있음을 의미한다. 사상(四相)은 세상의 모든 것이 실재한다는 집착<sup>28)</sup>인데 “사상이 더욱 높다”고 하였다. 집착이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이어 집착이 높아지면서 번뇌·고통도 높아진다. 번뇌·고통이 높아진 것을 “늑근 문두에 자취업슨 도적은 나며 들며”라고 하였다. 이어 화자는 번뇌를 베어 놓고 지혜로 배를 만들어 삼계의 바다를 건너겠다고 한다. “삼계”는 주에서 “육계 늑천과 십계 십팔천과 무식계 스천”이라고 하였다. 주에 따르면 삼계(三界)란 인간생전에 끝없이 찾아오는 미혹(迷惑)의 세계인 욕계(慾界)·색계(色界)·무색계(無色界)를 말한다. 삼계 바다를 건너다는 것은 미혹의 세계를 벗어나는 깨달음을 얻는 것이다. 화자인 ‘나’는 오온산에 들어가니 번뇌·고통이 있고 집착이 높아지자 번뇌·고통도 높아지는데 지혜로 번뇌를 베고 배를 만들어 미혹을 벗어나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한다.

화자의 ‘번뇌와 수행·득도’하는 삶을 살펴보았다. ‘나’는 인간의 인식기관에 탐욕이 결합됨으로써 생긴 번뇌를 제거하려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불경의 지혜를 가지고 오온산에 들어간다. 오온산에서는 인간의 인식기관에 집착이 결합됨으로써 생긴 번뇌가 있고 집착이 높아지자 번뇌도 높아진다. 그러자 지혜로 번뇌를 베고 배를 만들어 깨달음에 이른다. ‘번뇌와 수행·득도’가 두 번 반복된다. 첫 번째에서는 화자가 번뇌를 제거하려는 결의를 나타내는 것이고 두 번째에서는 화자가 번뇌를 제거하는 과정과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번뇌를 제거하는 수행·득도하는 과정이 순차적으로 전개된 것이다. 이상적인 수행자의 모습을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면에서도 이상적인 수행자의 모습을 나타낸다. <서왕가(염불)>에 있는 주를 바탕으로 해석하면 <서왕가(염불)>에 나타난 번뇌는 인식기관과 집착

27) 이종표, 『근본불교』, 민족사, 2002.

28) 김호성, 『대승경전과 선』, 민족사, 2002, 82면.

의 결합으로 생긴 것이다. 불교에서는 만물은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인연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인데 사람들이 만물이 실재한다는 집착에서 번뇌가 생긴다고 보고 있다. 그 양상을 설명한 것이 연기(緣起)이고, 연기를 체계화한 것이 오온(五蘊)과 집착(取)의 결합이다.<sup>29)</sup> <서왕가(염불)>에서는 연기(緣起)의 핵심적인 내용을 축약하여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번뇌와 수행·득도’에 나타난 삶은 실제 삶이라기보다 이상적인 수행자의 삶을 나타낸다.

깨달음을 이룬 화자는 일반 대중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행동한다. 불쌍한 중생들을 배에 실어 삼계바다를 건너려 하는 것(③)이 그것이다. 지혜로 번뇌를 베고 배를 만들어 삼계 바다를 건넌 화자이므로 중생을 배에 실어 바다를 건너려 한 것도 같은 화자이다. ‘수행과 득도’가 자리(自利)라고 한다면 중생을 구제하려는 것은 이타(利他)에 해당한다. 이상적인 수행자의 삶을 나타낸다. 화자가 중생을 구제하려 생각하니 세사에 집착하여 고통 받고 있는 인간들이 불쌍하고 슬프다. 그래서 화자는 중생들에게 불교적인 교훈을 전언하려 한다. (나)가 그 전언이다. (나)에서 화자는 중생들이 세사에 집착하여 청정한 불성을 생각하지 못하여 극락은 멀고 지옥은 가깝게 되었다고 한다. 이어 세상에서 욕심내어 얻은 물건은 티끌과 같으나 공덕은 후생에 복을 받을 수 있으니 지금 부모효양과 불공보시 등과 같은 공덕을 쌓으라고 한다. 그리고 본래 마음은 건곤보다 넓고 일월보다 밝으니 이 마음을 저 버리지 말라고 한다. 세사에 집착하였던 것에서 벗어나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가질 것을 전언하고 있다. (가)에서 화자가 인식기관과 집착의 결합으로 생긴 번뇌를 청정한 본래의 마음과 지혜로 제거하려고 결심한 것과 같다. 내용적인 면에서도 (가)와 (나)는 동일하다.

그런데 (다)의 화자는 그 성격이 다르다. (나)에서 화자는 중생들에게 불성의 마음을 버리지 말라며 교훈하였다. 그러자 (다)에서 화자는 “저근닷 생각”한다. “저근닷”의 사전적 의미는 “잠시(頃) 동안, 잠깐 사이”이란 뜻이다.<sup>30)</sup> 그런데 가사 작품에서 쓰인 예에서는 “잠깐”이란 의미로 쓰인 경

29) 변상섭은 연기는 결국 인간의 인식기능인 오온(五蘊)과 집착의 관련을 체계화한 것이라고 하였고, 方立天은 연기는 사람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 성분(五蘊)과 집착(取)이 서로 관계되어 고(苦)를 이루는 것을 체계화한 것이라고 하였다. 변상섭, 『선 신비주의인가, 철학인가?』, 컬처라인, 2000, 69면; 方立天, 앞의 책, 93면.

우<sup>31)</sup>와 “돌이켜, 다시금”이란 의미로 쓰인 경우가 있다.<sup>32)</sup> (다)의 “저근뎡 생각”한다는 구절을 ‘잠깐 생각한다’는 뜻으로 해석하였을 때에는 자신에 대한 설명이나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잠깐 생각한다’는 뜻이므로 “저근뎡”의 앞에 자신에 대한 설명이나 자신의 행동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다)의 앞에는 자신에 대한 설명이나 자신의 행동이 없다. (나)에서 화자가 청자에게 권고하자 (다)에서 “저근뎡” 생각하는 새로운 화자가 등장한다. 따라서 “저근뎡 생각하다”는 “다시, 돌이켜 생각한다”는 뜻이다. (나)의 화자가 중생에게 불교적 교훈을 전언하는 것을 듣고 (다)의 화자가 돌이켜 생각하는 것이다. (다)의 화자가 돌이켜 생각하는 것은 (나)에서 언급한 인식기관과 집착의 결합에서 생긴 번뇌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생각에서 화자는 마음에서 깨달은 바가 있어 “태허(太虛)”를 생각하게 된다. 태허는 공적(空寂), 하늘, 우주, 우주만물의 실체 등의 뜻이 있다.<sup>33)</sup> 이 가운데 불교가사에서는 주로 공적(空寂)이란 뜻으로 쓰인다.<sup>34)</sup> <몽환가(夢幻歌) 1>에서는 “호호태

30) 저근뎡(저근뎡, 저근뎡, 저근뎡) : 잠깐, 잠깐 동안, 잠시. 유창준, 『이조여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0, 654면;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 4』, 어문각, 1992, 5329면.

31) 가사에서 ‘저근 뎡’이 ‘잠깐’이란 의미로 쓰인 예는 “風乎(풍호) 舞夢(무약)인돌 이에서 더홀런가 / 저근뎡 훑거리 蝸室(와실)의 도라오니”(정훈, <수남방옹가(水南放翁歌)>), “先賢奉祀(선현봉사) 八十(팔십) 衰翁(쇠옹) 姜復中(강복중)은 / 赤手(적수)만 감쳐 쥐고 어디가 발을 벌고 / 저근뎡 시어저 이런 뜻 모르고저”(강복중, <위군위친통곡가(爲君爲親痛哭歌)>) 등이 있다. <수남방옹가>의 경우 풍호무약(風乎舞夢)하는 흥취를 즐긴 다음 ‘잠깐 사이’에 집으로 돌아온다는 의미이고, <위군위친통곡가>의 경우 문서를 위조한 자에 의하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선산을 잃게 될 지경에서 화자 자신은 적수공권(赤手空拳)으로 헤결할 길이 없는데 ‘잠깐 동안’만이라도 이 시름을 잊고자 한다는 의미이다. 인용 구절은 이상보, 『17세기 가사전집』, 교학연구사, 1987에 수록된 것이다.

32) 가사에서 ‘저근 뎡’이 ‘돌이켜, 다시금’이란 의미로 쓰인 예는 “우연(偶然)이 만나 보고 무죄(無罪)이 죽게 되니 / 이거시 뉘 탓신가 불상(不祥)토 안이혼가 / 저근뎡 생각하여 다시금 헤여 보소 / 대장부(大丈夫) 혼 목숨을 살너 주면 엇더 험고”(남철, <송여승가>)이다. 이 구절은 화자인 경화호걸(京華豪傑)이 여승에게 구애를 하였다가 거절당하자 여승에게 하소연하는 내용이다. 여기서 ‘저근뎡 생각하여’란 구절은 여승이 ‘돌이켜(다시금) 생각하기’를 바란다는 뜻이다. 인용 구절은 이상보, 『18세기 가사전집』, 민속원, 1991에 수록된 것이다.

33) “空寂玄奧之境, 天空, 宇宙, 宇宙萬物最原始的實體” 『한어대사전 2』, 1471면.

34) 사용된 예는 “고락영고(苦樂榮枯) 업는 상(相)을 선업악업(善業惡業) 분설(分說) 하니/ 설자(說者) 아니 허물인가 체동태허(體同太虛) 본적(本寂) 혼디/ 망상번뇌(妄想煩惱) 일너지니 허물이라 못 하올까”(지형, <참선곡(參禪曲)>. 『불교가사전집』, 197면), “내외자성(內外自性) 청정(淸淨)하야 본래(本來) 일물(一物) 걸림 업네 / 태허공(太虛空)에 새가 나니 새난 자취 어데 있나 / 자성허공(自性虛空) 청정(淸淨)하니 죄상(罪相) 자취 잇슬손가”(작자미상, <권왕가(勸往歌)>. 『불교가사전집』, 254면), “호호태허(浩浩太虛) 공적중(空寂中)의 무상무형(無相

허(浩浩太虛) 공적중(空寂中)의 무상무형(無相無形) 자기주인이라”고 하였다. 공적은 분별이 없는 본래의 마음을 뜻한다. (다)의 화자는 청정하고 분별이 없는 본래의 마음으로 번뇌를 제거한 것이다. 이어 ‘산첩첩(山疊疊), 수잔잔(水潺潺), 풍슬슬(風瑟瑟), 화명명(花明明), 송죽낙낙(松竹落落)한 자연의 모습이 드러난다. 불교가사에서 자연의 모습은 화자의 깨달음과 관련되거나<sup>35)</sup>, 화자의 무심(無心)과 관련된다.<sup>36)37)</sup> 이러한 사실로 보아 이 구절은 경물에 대한 화자의 정감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불교적인 깨달음을 얻은 상태를 비유한 것이다. 결국 (다)의 화자는 (나)에서의 전언을 듣고 분별이 없고 청정한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여 번뇌를 제거한 것이다.

<서왕가(염불)>에 나타난 교훈을 살펴보았다. (가)에서는 인간의 인식기관과 집착이 결합하여 번뇌가 생기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과 지혜로 번뇌를 제거하여 득도에 이른다. (나)에서도 중생들이 세사에 집착하여 번뇌가 생기고, 본래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득도에 이를 수 있다고 하였다. (다)에서 화자는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회복함으로써 득도의 길에 이른다. 곧 ‘인식

無形) 자기주인이라”(작자미상, <몽환가(夢幻歌) 1>, 『불교가사전집』, 323~324면) 등이다.

35) 사용된 예는 “천경만론 진법설(眞法說)은 이변(耳邊)에 소소(昭昭)하고 / 벽역찰토(百域刹土) 진불면은 안전(眼前)에 현현(顯顯)하다 / 청산(靑山)은 묵묵(默默)하고 녹수(綠水)난 잔잔(潺潺)하더 / 청풍(靑風)이 실실(瑟瑟)하니 이 엇더한 소식(消息)이며 / 명월(明月)이 단단(團團)하니 이 엇더한 경계(境界)던고 / 일이제명(一以諸明) 호은 중(中)에 활계(活計)조차 구족(具足)하다”(나옹화상, <낙도가(樂道歌)>, 『불교가사전집』, 146면), “각안기소(各安其所)이 아닌가 본택(本宅)에 주인옹(主人翁)은 / 송창(松窓)을 반만 열고 삼삼(森森)이 혼자 안저 / 구진먹실 아니어든 수교전심 부러할가 / 운몽몽(雲朦朦) 수잔잔(水潺潺) 풍소소(風簫簫) 월교교(月皎皎) / 화작작(花灼灼) 조남남(鳥喃喃)하니 영야청쇼 하쇼우이 / 도화(桃花) 뜬 말근 물을 갑 업시 쥐어 먹고 / 삼척 시비 반만 닷고 곤면기식(困眠飢食) 소요(逍遙)할 계 / 연대갑자(年代甲子) 다 모르되 화개엽락(花開葉落) 기춘추라” (용암대사, <초암가(草庵歌)>, 『불교가사전집』, 402면) 등이다.

36) 사용된 예는 “잔잔유수(潺潺流水) 반석상(盤石上)에 절로 생긴 송정(松亭)이요 / 슬슬(瑟瑟)한 금음(琴韻)조차 명월청풍(明月靑風) 상화(相和)로다 / 자곡조(鷓鴣鳥) 한 소래에 진일 무심(盡日無心) 종야(終夜) 무심(無心) / 무심객(無心客)이 되었스니 명월(明月)이 무심(無心)하야 / 나를 빗쳐 무심(無心)하고 청풍(靑風)이 무심(無心)하야 / 나를 부러 무심(無心)하다 무심행리(無心行李) 이리하니 / 무위진인(無爲眞人) 이 아니며 출세장부(出世丈夫) 이 안인가”(경허, <가가가음(可歌可吟)>, 『불교가사전집』, 278면)이다.

37) 이중찬 교수는 혜심의 <야좌시중(夜坐示衆)>이란 시의 “바람을 음미하니 소나무 슬슬하고, 바위에 지는 물 다시 잔잔하네. 거기다가 새벽 달 아스라하네, 두견새 맑은 소리 산을 부르네(吟風松瑟瑟 落水水潺潺 況復殘月曉 子規清叫山)”라는 구절은 한밤의 정경을 여실하게 읊었는데 정경은 본체의 실상이며 만상의 진여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중찬, 『한국불교시문학사론』, 불광출판부, 1993, 111면.

기관과 집착의 결합으로 번뇌가 생기고 그 번뇌를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제거함으로써 득도에 이른다'는 것이 주된 교훈이다. <서왕가(염불)>에서는 작품의 전개에 따라 화자도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다르다. (가)에서는 '번뇌와 수행·득도'하는 삶에 대한 '나'(수행자)의 독백이 드러나고, (나)에서는 중생에게 불교적 교훈을 전달하는 '나'(수행자)의 전언이 드러나고, (다)에서는 전언을 듣고 수행·득도하는 '나'(중생)의 독백이 드러난다. (가)와 (나)는 동일한 화자로 '번뇌와 수행·득도'함을 독백한 뒤에 중생을 위하여 전언한다. 번뇌와 수행·득도를 반복하다가 득도에 이른 뒤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전언한다. 자리아타(自利利他)의 이상적인 수행자의 모습이다. (나)와 (다)는 화자도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다르다. (나)는 전언이다. 그 전언 속에 본래의 마음을 잃어 번뇌에 찬 중생의 모습이 보인다. (다)에서는 전언을 들은 화자가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여 번뇌를 제거하고 득도하였음을 독백한다. (다) 화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는 번뇌이고 (다)는 수행·득도이다. (나)와 (다)에서는 번뇌하였다가 수행·득도하는 중생의 모습이 드러난다. 수행자와 중생의 모습이 유기적으로 연결된다. 곧 번뇌에 대하여 수행·득도한 수행자가 중생을 위하여 전언을 하고, 그 전언을 들은 중생이 수행·득도한 것이다. 왜 화자와 말하는 방식이 다른가?

<서왕가(염불)>는 『염불보권문』에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은 일반 대중들에게 불교를 포교하기 위한 것으로 이 책에 실린 <서왕가(염불)>는 대중 포교용으로 수용되었다. 따라서 대중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나)에 수행자의 전언이 있고 (다)에 그 전언을 들은 중생 '나'의 독백이 있으므로 중생들이 화자 '나'에 공감하기가 쉽다. 또한 (나)에서 '번뇌'를 제시하여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다)에서 '득도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공감하기도 쉽다. 또한 <서왕가(염불)>는 '염불작법'에 수록되어 불교의례에서의 염불문의 하나로 수용되었다. 따라서 승려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가)에 수행자 '나'의 '번뇌와 수행·득도'의 독백이 있으므로 승려들이 공감하기 쉽다. 뿐만 아니라 (가)에서는 자리(自利)를 제시하였고 (나)에서는 이타(利他)를 제시함으로써 승려들이 해야 할 두 가지 일이 모두 제시됨으로써 승려들이 공감하기 쉽다.

#### 4. 맺음말

<서왕가(염불)>는 대중 포교용 책인 『염불보권문』 가운데 ‘염불작법’에 수록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에서 보면 <서왕가(염불)>에 나타난 교훈은 대중 포교용 불교가사와는 내용·표현에서 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에서 본고에서는 <서왕가(염불)>의 수용문맥과 <서왕가(염불)>에 나타난 교훈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서왕가(염불)>의 수용문맥이다.

<서왕가(염불)>는 대중 포교용 서적인 『염불보권문』에 수용되었다. 그리고 <서왕가(염불)>는 『염불보권문』의 ‘염불작법’에 수록되어 있다. ‘염불작법’은 불교의례에 쓰인 염불문들을 모은 것임을 보아 <서왕가(염불)>가 염불문의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서왕가(염불)>는 인생의 무상함을 느낀 ‘나’가 출가하여 번뇌를 제거하는 득도를 이루고, 중생들에게 불교적인 교훈을 전언한다. ‘번뇌와 수행·득도’에 대한 독백과 불교적 교훈에 대한 전언이 있다. <서왕가(염불)>와 유사한 작품이면서도 대중 포교용으로 수용된 작품인 <강월존자 서왕가>와 <서왕가(권상로)> 등에서는 노랫말에 ‘번뇌와 수행·득도’라는 내용이 없는 것을 보아 <서왕가(염불)>가 염불문의 하나일 가능성도 있다.

둘째, <서왕가(염불)>에 나타난 교훈이다.

<서왕가(염불)>는 세 부분으로 나뉜다. 화자 ‘나’는 인간의 인식기관과 집착이 결합하여 번뇌가 생기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과 지혜로 번뇌를 제거하여 득도에 이르게 되었다고 독백한다. 이어 화자 ‘나’는 중생들에게 그들이 세사에 집착하여 번뇌가 생기고, 본래의 마음을 가짐으로써 득도에 이를 수 있다고 전언한다. 이 말은 들은 화자인 ‘나’는 본래의 청정한 마음을 회복함으로써 득도의 길에 이른다고 독백한다. ‘인식기관과 집착의 결합으로 번뇌가 생기고 그 번뇌를 본래의 청정한 마음으로 제거함으로써 득도에 이른다’는 것이 주된 교훈이다. 작품의 전개가 ‘출가-번뇌와 수행·득도-이타행’으로 되어 이상적인 수행자의 모습이 보이고, 작품의 내용이 연기설의 핵심이 축약된 것으로 실제 작가의 삶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화자는 이상적인 수행자와 수행자의 전언을 들은 중생이다. 화자와 말하는 방식에 따

라 작품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번뇌와 수행·득도’하는 삶에 대한 ‘나’(수행자)의 독백, 중생에게 불교적 교훈을 전달하는 ‘나’(수행자)의 전언, 전언을 듣고 수행·득도하는 ‘나’(중생)의 독백 등이 있다. ‘나’(수행자)의 독백과 ‘나’(수행자)의 전언에서 화자는 번뇌와 수행·득도를 반복하다가 득도에 이른 뒤에 중생을 구제하기 위하여 전언한다. 자리이타(自利利他)하는 이상적인 수행자의 모습이다. ‘나’(수행자)의 전언과 ‘나’(중생)의 독백은 화자도 다르고 말하는 방식도 다르다. ‘나’(수행자)의 전언에서는 본래의 마음을 잃어 번뇌에 찬 중생의 모습을 보인다. ‘나’(중생)의 독백에서는 화자가 본래의 마음을 회복하여 번뇌를 제거하고 득도하였음을 독백한다. ‘나’(중생)의 입장에서 보면 전언에 담긴 내용은 번뇌이고 ‘나’(중생)의 독백에 담긴 내용은 수행·득도이다. 번뇌하였다가 수행·득도하는 중생의 모습이다. 왜 화자와 말하는 방식이 다른가?

<서왕가(염불)>는 대중 포교용으로 수용되었다. 따라서 대중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나’(중생)의 독백이 있음으로 대중들이 공감하기가 쉽다. ‘번뇌’를 제시하여 문제를 인식하게 하고 ‘득도’의 길을 제시함으로써 대중들이 공감하기도 쉽다. <서왕가(염불)>는 불교의례에서의 염불문의 하나로 수용되었다. 따라서 승려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나’(수행자)의 번뇌와 수행·득도의 독백이 있음으로 승려들이 공감하기 쉽다. 뿐만 아니라 ‘나’(수행자)의 중생에 대한 전언이 있음으로 승려들이 해야 할 일이 모두 제시되어 승려들이 공감하기 쉽다.

본고에서는 불교가사에 나타난 불교적 교훈은 개별 작품에 따라 내용과 표현에 특징적인 면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개별 작품에 나타난 특징을 드러내려하였다. 이러한 의도에서 <서왕가(염불)>에 나타난 교훈의 ‘내용과 표현’을 깊이 있게 해석하려 하였고, 그 해석을 작품의 수용문맥과 관련하여 유기적으로 설명하려 하였다. 이러한 점이 본고의 의리라 볼 수 있다. 하지만 불교가사 전체에서 <서왕가(염불)>의 위치를 확인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서왕가(염불)>의 내용과 표현적 특징에서 보았을 때 불교가사 전체를 염불문의 성격을 띤 작품과 대중 포교의 성격을 띤 작품으로 그 양상을 나누고 역사적 전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논의를 위해서는 염불문의 특징·기능에 대한 고찰과 불교문학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고찰

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관련된 논의를 하지 못하였는데 앞으로의 과제로 삼는다.

## 참고문헌

### 1. 자료

- 『新編普勸文』, 海印寺, 1776(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念佛普勸文』, 禪雲寺, 1789(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念佛普勸文』, 修道寺, 1741(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 이상보, 『17세기 가사전집』, 교학연구사, 1987.  
이상보, 『18세기 가사전집』, 민속원, 1991.  
이상보, 『불교가사전집』, 집문당, 1980.

### 2. 단행본

- 김성배, 『한국 불교가요의 연구』, 문왕사, 1973.  
김영배 외 2인 공편, 『念佛普勸文의 國語學的 연구』, 동악어문학회, 1996.  
김호성, 『대승경전과 선』, 민족사, 2002.  
변상섭, 『선 신비주의인가, 철학인가?』, 컬처라인, 2000.  
유창순, 『이조어사전』, 연세대학교 출판부, 1990.  
이종찬, 『한국불교시문학사론』, 불광출판부, 1993.  
이중표, 『근본불교』, 민족사, 2002.  
한글학회, 『우리말큰사전 4』, 어문각, 1992.  
홍윤식, 『한국불교사의 연구』, 교문사, 1988.

- 方立天, 『불교철학개론』, 유영희 옮김, 민족사, 1992.

### 3. 논문

- 강전섭, 『傳懶翁和尚作 歌辭 四篇에 대하여』, 『한국시가문학연구』, 대왕사, 1986, 70~103면.  
김기탁, 『懶翁和尚의 작품과 가사발생연원 고찰』, 『영남어문학』 3집, 영남어문학회, 1976, 45~59면.  
김대행, 『서왕가와 문학교육론』, 『한국가사문학연구』, 태학사, 1996, 597~611면.  
김종우, 『나옹과 그의 가사에 대한 연구』, 『논문집』 17집, 부산대학교, 1974, 1~23면.  
김종진, 『불교가사의 유통 연구』,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정대구, 『승원가의 작자 연구』, 『승실어문』 1집, 숭실대학교 국어국문학회, 1984, 149

~174면.

정재호, 『나옹작 가사의 진위』, 『한국가사문학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83~109면.

정재호, 『서왕가와 승원가의 비교』, 『한국가사문학의 이해』, 고려대학교 출판부, 1998, 110~135면.

조태영, 『서왕가의 문학적 가치』, 『한국고전시가작품론 2』, 집문당, 1992, 585~596면.

최강현, 『서왕가 연구』, 『인문논집』 17집,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1972, 93~114면.

최강현, 『가사의 발생사적 연구』, 『가사문학연구』, 정음사, 1979, 13~81면.

## The reception context and reinterpreting lesson in Seowanga

Jeong, Han-Gi

In this thesis, I aim at investigation at the reception context and the lesson in Seowanga(서왕가). The result is as follows.

The reception context of Seowanga(서왕가) : Seowanga(서왕가) is included in Yembulbogwonmun(염불보권문) Yembuljakbeop(염불작법). Yembulbogwonmun(염불보권문) is the book of propagating Buddhism to people. Yembuljakbeop(염불작법) is the third part in Yembulbogwonmun(염불보권문) and include the various Buddhist prayer. As these fact, we know that reception context of Seowanga(서왕가) is propagating Buddhism to people and chanting a Buddhist prayer in Buddhist ritual.

The lesson in Seowanga(서왕가) : There are three part in Seowanga(서왕가). The first part is a disciplinant's monologue. A disciplinant monologize about his life of agony and achieving spiritual enlightenment. The second part is a disciplinant's delivering a message. A disciplinant deliver the message of agony and achieving spiritual enlightenment. The third part is a people's monologue. A people monologize about his life of achieving spiritual enlightenment. One reception context of Seowanga(서왕가) is propagating Buddhism to people. So Seowanga(서왕가) must be easy empathized by people. The people empathize with Seowanga(서왕가) through a people's monologue and the life of agony-achieving spiritual enlightenment. The other reception context of Seowanga(서왕가) is chanting a Buddhist prayer in Buddhist ritual. So Seowanga(서왕가) must be easy empathized by Buddhist monk. The Buddhist monk empathize with Seowanga(서왕가) through a disciplinant's monologue and the life of agony-achieving spiritual enlightenment.

keywords: Buddhism, Buddhist-Gasa(불교가사), Seowanga(서왕가), Yembulbogwonmun(염불보권문), Yembuljakbeop(염불작법), speaker, lesson.

접수일자: 2016. 9. 30.

심사기간: 2016. 10. 1.~2016. 11. 10.

게재결정: 2016. 11. 10.

